

또 결장 박지성 밀렸나? 미뤄졌나?

웨스트브롬위치와 EPL 개막전 끝내 벤치...어떻게 봐야 하나

왼쪽 윙 출전 애슐리 영, 빠른 돌파 돋보여 박지성, 수비 가담·큰경기 경험서 한수 위 토트넘·아스널 홈 빅매치 출격 가능성 커

기다렸던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최근 맨유와 재계약에 성공한 박지성은 15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웨스트브롬위치 호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브롬위치 엘비언과의 2011~2012 프리미어리그 개막전(맨유 2-1 승)에 교체 멤버로 이름을 올렸으나 실전에 투입되지 않았다. 이날 박지성은 터치라인 부근에서 가볍게 몸만 풀었을 뿐,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호출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 맨유 입단 이후 늘 거센 경쟁에 휘말렸고, 마지막 순간에서는 활짝 웃었기 때문이다.

●지성 vs 영

박지성 대신 맨유의 왼쪽 측면을 책임진 이는 애슐리 영과 루이스 나니였다. 초반부터 영의 빠른 돌파는 빛을 발했다. 맨유의 공격은 대부분 왼쪽 측면에서 이뤄졌다. 전반 13분 만에 영은 날카로운 패스로 전방 골게터 웨인 루니의 골을 도왔다.

스코어 1-1 상황이던 후반 35분 다시 한번 영의 활약이 골을 엮어냈다. 왼쪽을 파고 들던 영은 골 지역 구석에서 강하게 슛을 했고, 이는 상대 수비 스티븐 리드의 다리를 맞고 굴절돼 골 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오른쪽 날개인 나니의 플레이는 그다지 좋지 못했다. 전반 22분과 30분 두 차례 결정적인 찬스를 허공에 날려 벤치를 허탈하게 했다.

박지성은 지역 라이벌 맨체스터시티와의 커뮤니티 실드부터 결장해 이번 시즌 개막 2연전에 모두 불참했다. 다시금 경쟁 체제다. 맨유에는 안토니오 발렌시아까지 포함해 영이 4명이 있다.

현 시점에서 보면 2골 모두 관여한 영이 아직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잡지 못한 박지

성보다 주전 싸움에서 한 발 앞선 것으로 보이나 둘은 나름의 장단점이 뚜렷하다.

영이 빠른 드리블과 돌파력을 인정받는다면 박지성은 수비 가담과 동료들과 패스를 주고받으며 공간을 창출하는 모습이 좋다. '원 맨(One Man)' 요원과 '협력' 요원의 차이이다.

유럽축구연맹(UEFA)도 박지성에게 '수비형 윙어의 전형'이라고 칭한다. 그렇다고 박지성의 공격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지난 시즌 옐로카드를 한 장 받으면서도 8골을 넣었고, 영은 9골을 기록하며 경고 11회, 퇴장은 1회였다. 팀을 위하고, 수비 방법을 안다는 점에서 박지성의 입지가 좁지는 않다.

●큰 무대 경험에선 앞선다

맨유는 리그 외에도 UEFA 챔피언스리그, FA컵, 칼링컵 등 다양한 무대에 나선다. 퍼거슨 감독은 고정된 선수 활용을 선호하는 편이 아니다. 철저한 로테이션 체제다. 필요할 때는 박지성을 호출한다. 이번 경기도 박지성은 투입이 충분히 예견됐으나 네마나 비디치, 리오 퍼디낸드 등 수비진들이 줄 부상을 입으며 기회를 잡지 못했을 뿐이다.

큰 무대에서는 박지성이 비교 우위에 있다. 챔스리그 결승전 등 굵직한 대회를 여러 차례 치렀다. 이에 반해 영은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예선 라운드에 출전한 게 전부다. 경험적인 요소는 무시할 수 없는 주요 변수다. 맨유는 이달에만 토트넘 홋스퍼(23일), 아스널(29일)과 홈 2연전을 갖는다. 두 팀 모두 강력한 우승 경쟁 후보군이다. '빅 매치에 강한' 박지성 카드를 퍼거슨 감독이 꺼내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 맨유 박지성이 15일(한국시간) 열린 EPL 개막전 포함 최근 2경기에서 연속 벤치를 지켰다. 맨유 퍼거슨 감독이 언제 박지성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스포츠동아DB

편집 | 김재학 기자 jaeapod@donga.com 트위터 @jaeapod

K리그 6강PO 주인공? 14위 성남에 물어봐!

용병 골게터 필렐 날며 급상승세
갈길 바쁜 울산, 고춧가루에 당해

K리그에 '성남 일화 주의보'가 내려졌다.

성남은 리그 14위에 머물러 있어 PO진출 경쟁이 어렵지만 후반기 상승세가 만만치 않다. 상위권에서 6강 PO 진출을 다두고 있는 팀들에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릴 기세다. 특히 성남은 안방에서 매우 강하다. 10경기에서 5승5무로 단 한 경기도 패하지 않았다.

첫 희생양은 울산 현대였다. 울산은 14일 경기에서 성남에 2-3으로 패했다. 9위 울산은

6강 경쟁을 하기 위해서 성남을 반드시 꺾어야 했다. 하지만 성남에 고전한 끝에 경기를 패해 6강 싸움을 하고 있는 수원(6위), 전남(7위), 경남(8위)과의 승점차를 좁히지 못했다.

성남의 최근 상승세는 부상에서 복귀한 라돈치치를 비롯해 공격을 책임지는 용병들의 활약이 점차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몸싸움에 능한 라돈치치와 개인기와 스피드가 좋은 에델튼과 에델정요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격 작업이 매우 위력적이다. 조동건과 조재철 등 국내파 공격수들도 제 몫을 하고 있다.

지난달 이적시장에서 팀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사샤도 잔류가 확정된 뒤 이전보다 좋

은 활약으로 팀에 보탬을 주고 있다. 그 덕분인지 성남은 이달 들어 치른 2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챙겼다. 2경기에서 6골을 몰아넣었고, 실점은 1골에 불과했다. 공수의 밸런스가 맞아가고 있다.

성남-울산전을 직접 관전한 경남 최진한 감독은 "성남이 전반기보다 많이 안정됐다. 울산 선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진 탓도 있지만 성남의 역습이 날카로웠다"고 분석했다. 20일 성남과 원정경기를 갖는 최 감독은 "성남의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어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 같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성남 선수들이 14일 울산전에서 골을 넣은 뒤 벤치로 달려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성남은 후반기를 확연히 달라진 경기력으로 상위권 팀들을 위협하고 있다.

성남 | 박희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seven7sola



“박주영 영입경쟁, 세리에A 나폴리도 가세”

프랑스 리그2로 강등된 AS모나코와 결별이 확실시 되는 국가대표팀 '캡틴' 박주영(사진)의 거취를 놓고 이적설이 또 나왔다. 최근 이탈리아 세리에A 나폴리까지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끈다. 15일(한국시간) 이탈리아 축구 전문매체 칼치오온라인은 “나폴리가 박주영을 데려오기 위해 600만 유로의 이적료를 마련하고 접촉 중”이라고 전했다. 나폴리 이적 투머는 7월 말부터 나왔고, 이밖에 리버풀, 토트넘, 풀럼(이상 잉글랜드), 살케04(독일), 세비야(스페인) 등이 후보군에 올라 있다. 박주영 측은 현재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식 언급을 피하고 있다.

레알·바르사 슈퍼컵 1차전 2-2 무승부

스페인 프로축구 양대 산맥인 레알 마드리드와 FC바르셀로나가 2011~2012시즌 첫 맞대결에서 비겼다. 두 팀은 15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경기장에서 열린 슈퍼컵 1차전에서 2-2로 승부를 내지 못했다.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는 1-1로 맞서던 전반 45분 왼발슛으로 2-1을 만들었으나 후반 9분 레알 마드리드의 사비 알론소(스페인)가 동점골을 뽑아냈다. 두 팀은 17일 2차전을 치른다. 스페인 슈퍼컵은 이전 시즌 프리메라리가 우승팀(FC바르셀로나)과 국왕컵 우승팀(레알 마드리드)이 맞붙는 대회로, 최근 2년간 FC바르셀로나가 내리 우승했다.

부산 안익수 감독의 이유있는 ‘채찍론’

기대이상 4위 선전에도 칭찬보다 질타
“2~3년후 최강팀 되려면 더 노력해야”

K리그 정규리그 4위에 오른 부산의 안익수(사진) 감독.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안 감독은 경기 후 공식인터뷰에서

선수들에 대한 칭찬에 인색하다. 승리를 해도 “집중력이 부족하다”, “실수가 너무 많다” 등등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분발을 요구하고 있다.

안 감독의 지적과 달리 부산의 경기력은 나쁘지 않다. 서울, 전북, 포항, 수원 등과 비교해 결출한 스타 1명이 없지만 단단한 조직



꾸준하게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안 감독은 선수들에게 칭찬보다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더 강한 자국을 주고

력으로 좋은 승부를 이어가고 있다. 승부조작사건에 주전 수비수 4명이 연루돼 수비라인이 붕괴되는 위기도 맞았지만 이를 극복했다. 부산은 5월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있다. 그 이유를 묻자 안 감독은 “우리 목표는 지금이 아니라 2~3년 후 강팀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세련된 축구를 하기 위해선 모든 부분에서 발전해야 한다. 팬들에게 사랑받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안 감독은 “주마가 편”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에겐 지금 당근보다 채찍이 더 필요한 시기다”고 강조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